

지도가 없는 길 속으로 들어가기



《베니스에서 죽다》 정찬 지음 | 문학과제선사 | 340쪽 | 값 8,500원

《베니스에서 죽다》는 즐기차게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추적해 온 작가 정찬(50)이 네 번째로 상재한 작품집이다. 이 책에 수록된 열한 편의 소설들은 일관된 주제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가능한 한 다성적인 목소리로 들려준다.

이를테면 <베니스에서 죽다>나 <은빛 동전>, <적멸>, <시인의 시간> 등의 작품이 기억을 통해 지나간 시간의 회로를 더듬으면서 존재에 부여된 영원성을 탐문하는 정찬 특유의 전통적인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면 <가면의 영혼>이나 <죽음의 질문> 같은 작품들은 간택스트, 환각, 환상성 등이 가미돼 다소 실험적인 형식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소설가’를 작중 인물로 내세운 소설이 다섯 편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소설가의 자의식은 기억이나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소설가는 지도가 없는 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기억이나 회고를 통해 지나간 시간을 재구성하면서, 길을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소설가를 작중 인물로 내세운 작품들이 많은 건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소설에 대해서 말할 때 확실히 정찬은 다소간, 수다스러워지고 확고해진다. 정찬은 소설을 끝마치는 순간, 소설은 소설가의 것이 아니고 독자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의 이런 태도에서 소설에 대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외경과 일체의 속박과 구속을 벗어던진 유연한 속내가 드러난다.



이 책은 전작들에서 보여준 작가의 관심을 보다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작가가 문제 삼고 있는 건 여전히 시간에 대응하는 존재의 방식과 의미이다. 질료는 기억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처럼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는 것일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근간으로 존재하죠. 기억을 통해 시간의 궤적이 드러나고, 회고하면서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의 시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현재’와 부조화하기 때문이에요. 현재와의 균열과 거기서 오는 불안 때문에 과거를 탐문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균열과 불안을 견디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지나간 시간을 들여다보는 그의 소설들은 다소 음울하고 비극적이다. 상처와 죽음, 상실 같은 음지의 의미들이 중요한 소재로 차용되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현대소설의 중요한 특징인 해학과 위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내 소설이 다소 음울하게 비쳐지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형으로서 존재가 갖춰야 할 조건과 세계와의 간극을 응시하다 보면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소설이 현실 너머의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물적이고 짧은 사유나 감각적인 재미를 위한 것들에 소설은 대항체의 역할을 해야 하죠.”

예술에 대한, 미학적 질서로서의 소설에 대한 그의 신념은 이처럼 강고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그는 요즘의 젊은 작가들의 소설, 그리고 문학 독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예술의 본래 기능은 실용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 현실의 불합리한 모순을 일깨우는 것이 예술의 기능이죠. 요즘 독자들은 지나치게 실용적인 도움이 되는 책만을 찾고 있고 일부 작가들도 그것에 부응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정신의 황폐화, 사유의 즉물화가 초래됩니다.”

정찬은, 시대의 유행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정밀하게 파악해 비평하는 사람이다. ‘시류에 맞지 않는 소설’이 왜 필요한가. 《베니스에서 죽다》가 분명한 답을 보여준다. **■**

김도연 기자

